

100% 울 형태기억 셔츠 개발

아오키 인터내셔널과 IWS(국제양모사무국)는 모방, 어패럴, 염색·가공 등 5개사와 생산팀을 편성하여 최근 100% 울 형상기억 셔츠를 개발하였다

생산팀은 직물생산에서 동아방직, 석경모직, 제품화는 노블레벤파식, 염색·가공은 소토가 프로젝트팀을 편성, 우천착용에 의해 형이 찌그러지거나 통상 착용시에 주름이 생기더라도 하룻밤 행거에 걸어두면 다음날 노아이룸으로 착용할 수 있는 신상품 “AIKS”를 탄생시켰다.

지금까지 슬랙스의 주름 등 형상기억가공으로서 시로셋트가공 (Siroset process)이 보급되어 왔으나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종래의 울 소재의 결점인 고습기, 발한, 비 등에 의해 소재자체가 신축하여 발생하는 하이그랄 익스팬션(hygral expansion)이나 퍼커링에 의한 형상을 억제하여 확실한 가봉성을 실현하고 있다. 게다가 IWS의 형태안정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은 IWS의 외관보지성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직물가공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천연의 반응성 폴리머를 사용한 수지가공에다 에이징(ageing)효과를 가속하는 특수세트가공을 응용, 주름회복성은 착용시험을 토대로 인체의 생리학적 요소와 주름발생에 관계되는 하중, 시간 등의 요소에 기초를 두고 한점한점 평가된다.

또 새로 개발된 세트가공 시스템의 “테이크스”에 의해 절목, 봉목, 등의 형상이 가공시의 그대로 기억된다. 그 효과는 70℃의 온수에 30분 침지하더라도 지워지지 않고 건조하면 자동적으로 되돌아가는 making-up성을 실증하고 있다.